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곳 체류인구 더하니 인구 4.5배 ↑

1~3월 생활인구 369만2473명...구례 18.4배 전국서 가장 높아 전국 평균 상회...전남도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활용 나서

구례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 4134명(6월 말 기준)이다.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체류인구·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는 무려 44만 9206명(1~3월)에 이른다. 무려 18.4배 차이로 전국 인구감소지역(87곳) 중 차이가 가장 크다.

담양의 비슷하다. 담양의 같은 기간 체류인구는 32만 2399명, 주민등록인구(6월 말 기준·4만 5031명)의 7배에 이른다.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인구 차이로는 전국에서 10번째였다.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은 이번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힌 16개 지역(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의 지난 1~3월 생활인구는 369만2473명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을 비롯해 월 1회 또는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한 체류인구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299만 502명으로 주민등록인구(67만675명)의 약 4.5배 수준이었다.

특히 전남지역의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인구 차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실제 사는 주민보

다 통학·여행·학교 등으로 잠시 체류하는 인구가 많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전체 체류인구는 2000만여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0만여명) 대비 4배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를 상회했다.

구례군의 체류인구는 지난 1~3월 말 44만 92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2만 4196명)의 18.4배였다. 지난 3월 구례에서 열린 '산수유꽃축제'가 체류인구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관광제, 국수거리 등으로 유명한 담양군의 지난 1~3월 체류인구는 32만 2399명으로, 주민등록인구(4만 5059명)의 7배를 넘어섰다.

가우도·갈대발상대공원 등으로 알려진 강진군의 체류인구도 14만 9902명으로 주민등록인구보다 4.6배나 많았고, 장성(4.6배), 곡성(4.5배), 화순(4.2배) 등도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조사 기간 다양한 봄 축제 등으로 체류 인구가 늘면서 전국 체류인구 대비 주민등록 인구 차이보다 컸던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연령별 전남지역 체류인구는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 평균 체류 일수는 3.2일, 숙박시 평균 숙박 일수는 4.2일로 늘어났다. 한편,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차이는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5배로 가장 컸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진정한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제 광주 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 언급

강기정 광주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첫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호응하고 나서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시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힌 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협력회의에서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에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 과정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지방에 권한이 없어 제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또 도내 22개 시·군과 추진 중인 전남도·시·군 출생기부금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김 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4500ha 규모의 신규 김 양식시장을 추가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지우·박진표 기자 dok2000@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3조 2000억원 썼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대 약 3조2000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번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약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가 각각 3조1200억원, 1102억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이 3007억원,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도 지원한 금액이 2조 6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1205억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을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또 지원금 상환을 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줬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이번 정부 정책 기조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시, 대표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21곳이 포함됐다.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방역 조치 이행을 사유로 지원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가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총선 이후 첫 30% 회복

NBS 조사...국힘 36%·민주 2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올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4%포인트(p) 오른 수치로, 총선 전이었던 4월 4일 조사(38%)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30% 선을 돌파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포인트 내린 62%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25%, 조국혁신당 9%, 개혁당 3%,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2%였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대비 6%포인트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 3%포인트 떨어졌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합성제 (Nexchl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료



- 1997 테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역량개발, 수출유망사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정관선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정관선 표창 (환경부전문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령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향유

테라인더스트리(주)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돈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축척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공고 제 2024-1호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청구 신고 최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3년 76 상속재산관리선
입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관리인 민병 제1056호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수증자 사망자 유류물품 처분 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상속재산관리인 성명 : 고승원
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로 391번지

2. 피상속인 성명 : 김남진
등류기준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로 391번지
최종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로 391번지
생년월일 : 1945년 5월 5일생
사망일시 및 장소 : 2023년 05월 07일 / 해남유리종합병원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 존부가 불명하므로 일반 상속채권
자와 유류물품 처분권이 있는 2024년 09월 30일까지 그 재
권 또는 수증을 신고 할 것
민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그 채권을 변제에
서 제외한다.

2024년 7월 26일

망 남진원의 상속재산관리인 고승원 (061-536-364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대**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협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